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 돕슨 별세 우파 표 결집 레이건 등 당선 기여

아동심리학자이자 보수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해온 제임스 C. 돕슨 주니어가 21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돕슨은 1936년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서 태어나 오 클라호마와 텍사스를 거쳐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칼리지를 졸업했다. 1967년 USC에서 아동발달학 박사 학위를 받고 14년간 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했으며, LA 아동병원에서도 근무했다. 돕슨은 1960년대 반전 운동, 성적 규범의 변화, 마약 사용 등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발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아동 훈육을 강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70년 출간한 베스트셀러 '훈육에 도전하라(Dare to Discipline)' 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처벌을 포함한 단호한 경계 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7년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를 창립해 보수적 기독교 가치를 전파했으며, 이는 곧 복음주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됐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는 급속히 성장해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며 종교 우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후 워싱턴에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 을 설립하며 정치적 활동을 뒷받침했다. 라디오 청취자는 주당 약 700만 명에 달했으며, 그의 발언은 의회 전화망을 마비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는 여성의 사회 진출, 피임, 혼전 동거, 낙태, 동성결혼을 가축 해체와 사회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바로잡혔다" 며 환영했다.

2004년 대선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것은 죄" 라며 복음주의자들의 표 결집을 촉구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기여했다. 당시 진보 성향 단체 '피플 포 더 아메리칸 웨이' 대표 딸프 니스는 "돕슨은 종교 우파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이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불륜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앙 공동체와의 약속을 지킨 가장 낙태에 반대하는 대통령" 이라며 지지했다.

1970년대 중반 방송인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뒤, 그는 70여 권의 저서를 펴내며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1988년에는 본부를 플로리다 스프링스로 옮겨 80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세우고 1,300명을 고용했으며, 연간 방문객은 수십만 명, 2005년 매출은 1억4,0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와의 인터뷰, 스펀지밥 캐릭터를 '진동성애' 라고 규정한 발언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비교적 검소하게 살았다고 평가된다.

그의 별세로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행복의 그릇을 크게 만드세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네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네 마음의 결정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보다 밝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밝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에는 반드시 서원을 지녀야 합니다. 무엇인가 마음속에 발원한다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기필코 이뤄집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발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시간과 공간을 가르면서 정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죄악입니다. 스스로 지니고 있는 능력을 무시하고 아만심을 내며 노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글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글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합리적 이론과 달변 등을 고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생활은 매우 가난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 사람의 글과 언어 속에는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글에 대한 재능은 풍부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그와 같은 불행과 가난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글을 통해 고스란히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가난과 불행은 정진과 노력의 부족, 신념과 성실의 부족, 봉사와 애정의 부족, 배려와 관용 정신의 부족, 보시하는 마음의 결핍 등이 구상화(具象化)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심을 해야 합니다. 발심이야말로 이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요, 처방이며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왜 진정한 발심이 필요한지, 발심의 구체적인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움 슬픔 등은 모두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 차근차근 노력하세요. 우리 속담 가운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며 법 닦기를 생각하면 오래지 않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번뇌가 없는 행을 성취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같은 정진은 실상지혜(實相智慧)를 바탕으로 하여 대보리를 인(因)으로 삼고, 동체대비를 근(根)으로 삼으며 퇴전이 없는 심신의 노력으로 방편을 삼습니다. 정진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으로 신념과 성실의 부족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면에 뜨거운 열

정인 신념을 갖고 일에 뛰어든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근기에 맞춰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애정의 부족도 극복해야 합니다. 보살정신의 이념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향한 절대자비의 강조입니다. <아함경>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제가 하겠습니까라는 봉사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이어가야만 나의 복덕도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배려와 관용정신의 부족을 극복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관용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남의 언행에 대한 반응이 곧 관용입니다. 배려와 관용에 대해 부처님께서 인욕정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없는 자애심의 발로인 인욕을 통해 기쁨과 대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배풀어주는 마음의 결핍도 극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복전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물을 끌어 올리지 않았던 펌프에서는 아무리 핸들을 틀어도 물을 끌어 올리지 못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주는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가난도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원스님-

#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T.562.279.4200 |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